고려시대 석독구결 자료에 나타난 부정법 연구

조은주*

요 약

이 논문은 고려시대 석독구결 자료인 '『新譯華嚴經』『合部金光明經』『舊譯仁王經』『瑜伽師地論』'에 나타나는 부정법을 고찰하기 위하여 각 자료에 나타나는 부정사를 확인하고, 각각의 부정사의 기능과 용법을 살펴보았다.

그리하여 부정사 '不矣(非矣/未矣), 無(无/莫/靡), 無(无)ㅅ-'는 명사문 부정 형식에, 부정사 '不多'은 용언문 부정 형식의 단형 부정에, 부정사 '不多(非多), 不ㅅ(未ㅅ), 未ㅣ, 無(无/莫/靡), 無(无)ㅅ-'는 용언문 부정 형식의 장형 부정에 쓰임을 확인하였다.

*핵심어: 석독구결, 부정사, 부정법

Ⅰ. 서론

본고는 고려시대 석독구결 자료에 나타나는 '부정법'을 고찰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고려시대 석독구결 자료로서 알려진 것은 「釋華嚴經教分記」『大方廣華嚴經疏』『新譯華嚴經』『合部金光明經』『舊譯仁

* 檀國大

王經』『瑜伽師地論』이다. 이 중 「釋華嚴經敎分記」는 2행 남짓하여 전해 주는 구결의 양이 적고, 『大方廣華嚴經疏』 卷35는 현재 그 전부가 공개되지 않았으므로 여기서는 이 2자료를 제외한 나머지 4자료를 연구 대상으로 한다. 『新譯華嚴經』 卷14는 12세기 말에서 13세기 초의 자료이며, 『合部金光明經』 卷3은 정확한 연대는 미상이나 『華嚴經』보다는 뒤지는 것으로 13세기 전반으로 추정되는 자료이다. 『舊譯仁王經』 上落張 5매는 13세기 중엽의 자료이며, 『瑜伽師地論』 卷20은 간기가 있는 자료로 그 연대는 13세기 후반으로 추정된다.[1] 따라서 이 4자료에 나타나는 부정법의 고찰은 고려시대 부정법의 단면을 밝히는 것이며, 나아가서 12세기 말에서 13세기 말까지 즉, 1세기에 걸치는 동안의 국어 부정법의 양상을 考究하는 것이 된다. 여기서는 부정법의 역사적인 변화 과정을 밝히기 위한 작업의 일환으로 고려시대 석독구결 자료에 나타나는 부정법을 살펴보고자 한다. 고찰 방법은 이들 자료에 나타나는 부정사를 확인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그리고 확인된 각 부정사가 문장에서 어떤 기능과 용법으로 쓰이는 가를 검토한다. 이때 피부정사와 부정사의 의미영역도 함께 고찰한다. 아울러 고대국어 시기의 부정법 양상에 대한 검토를 통해 후기 중세국어 자료에 나타나는 부정법의 특징과 비교 검토하는 작업도 병행할 것이다.[2]

Ⅱ. 부정사 확인

부정법에 대한 연구는 현대국어에 국한되어 변형생성론적 접근을 시도한 연구가 대부분이다. 이외에 중세국어의 부정법을 다룬 연구가 있

1) 각 자료에 대한 연대 추정은 南豊鉉(1996c:2-6)에서 동명사어미 '-ㄱ(ㄴ)'과 어말어미 '-ㅗ(ㅅ)', '-ㅎ'의 결합형을 중심으로 그 연대를 추정한 바 있다.
2) 15세기 국어의 부정법에 대해서는 졸고(2000) 참조.

으며, 고대국어의 부정법을 다룬 연구는 쉽게 찾을 수 없다. 南豊鉉(1975)와 洪宗善(1980)을 들 수 있을 뿐이다. 南豊鉉(1975)는 15세기와 15세기 이전의 부정법을 다루고 있다. 15세기 이전의 부정법에서는 이두와 『舊譯仁王經』 석독구결 자료를 대상으로 했다. 洪宗善(1980)은 국어 부정법의 변천과정을 통시적으로 다룬 것으로 몽고어, 만주어, 일본어, 알타이 제어의 부정법을 비교하고 고려 이전의 부정법과 조선시대의 부정법을 다루고 있다. 고려시대 부정법에 대한 언급은 없다. 따라서 여기서는 『舊譯仁王經』을 포함한 구결자료를 통해 고려시대 부정법의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각 자료에서 확인된 부정사를 정리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① 不冬-/안돌-, 非冬-/안돌-
② 不矣-/안디-, 非矣-/안디-, 未矣-/안디-
③ 不ㅅ-/안ᄃᆞ-, 未ㅅ-/안ᄃᆞ-
④ 未ㅣ-/아니-
⑤ 無(无)/없-, 靡/없-, 莫/없-
⑥ 無(无)ㅅ-/無(无)ᄒᆞ-
⑦ 勿ㅅ-/勿호-
⑧ 不能ㅣ矣-/不能이디-
⑨ 不ㅣ矣-/아니디-, 非ㅣ矣/아니디
⑩ 無不ㅅ-/無不ᄒᆞ-, 不無ㅅ-/不無ᄒᆞ-
⑪ 無有七分

南豊鉉(1996a, b)은 '尸/ㄹ' 동명사의 부정사로 다음과 같은 부정사를 지적한 바 있다.

① 不冬ㅅ-/안돌ᄒᆞ-, 非冬ㅅ-/안돌ᄒᆞ-
② 不矣-/안디-, 非矣-/안디-

③ 不ㅅᄂᆞ-/안ᄃᆞᆨᄒᆞ-, 未ㅅᄂᆞ-/안ᄃᆞᆨᄒᆞ-
④ 未ㅣᄂᆞ-/아니ᄒᆞ-
⑤ 勿ᄂᆞ-/勿ᄒᆞ-
⑥ 不能, 無不
⑦ 無/없-, 莫ᄀᆞ/없-
⑧ 无ᄂᆞ-/无ᄒᆞ-

이와 비교해 보면 '未矣-/안디-, 不無ᄂᆞ-/不無ᄒᆞ-, 靡/없-, 不ㅣ矣-/아니디-, 非ㅣ矣-/아니디-, 無有ᄀᆞ' 정도의 부정사가 더 확인된다.

다음은 확인된 부정사들의 기능과 용법을 살펴 고려시대 부정법의 양상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

Ⅲ. 부정사의 기능과 용법

2.1 부정사 '不ᄒᆞ-'과 '非ᄒᆞ-'

먼저 부정사 '不ᄒᆞ-/안ᄃᆞᆯ-'과 '非ᄒᆞ-/안ᄃᆞᆯ-'에 대해서 살펴보자.

(1) a. 三者 一切 難行ㅅᄃᆞᆯᄒᆞ 厭心ᄒᆞ 生ᄃᆞᆯ 不ᄒᆞᄂᆞᆫᄀᆞ/ 셋째 一切의 難行한 것에(대하여) 厭心을 낳지 않으며 <金光 3:13>[3]

b. 諸 隨煩惱ᄒᆞ 復ᄒᆞ 現行ᄒᆞᆫᄃᆞᆯ 不ᄒᆞᄂᆞᆫᄃᆞᆺᄒᆞᆫ 善ᄀᆞ 念住ᄒᆞ 守ᄒᆞᄂᆞᆫᄀᆞ/ 모든 煩惱를 따라 다시는 現行하지 아니하여서 잘 念住를 지키며 <瑜伽 19:6-7>

b′. 諸 隨煩惱ᄒᆞ 現行 不ᄒᆞᄂᆞᆫ[令]ㅣ[爲]ㅅᄂᆞᆫᄃᆞᆯㅅᄆᆞᆫ 故ᄀᆞ/ 모든 煩

3) 예문은 한문을 토가 지시한 대로 우리말의 순서로 옮겨 놓은 것이며, 밑줄은 필자의 것이다. 현대어 해석은 동국대 역경원 한글대장경을 참고한 것으로 직역함을 원칙으로 하였다.

惱를 따라 現行함이 없다고 하는 까닭이며 <瑜伽 16:12-13>

c. 初地ㄴ 念ノ尸入ㄴ 忘尸 不多ンカンナヵセㅣ/ 初地를 念하기를 잊지 아니하며 하여야 할 것이다. <金光 9:8-10>

c′. 三地ㄴ 念ノ尸入ㄴ 忘 不多ンナヵセㅣ/ 三地를 念하기를 잊지 아니 하여야 할 것이다. <金光 9:24-10:1>

예 (1a)~(1c′)까지의 예들은 '-尸' 동명사형을 피부정사로 하는 용언문 부정 형식이다. (1a)는 『瑜伽師地論』에 4예, 「金光明經」에 1예가 나타나는데, 모두 '목적어(-ㄴ) + 生尸 + 不多ン-'의 형식을 띤다. (1b)와 (1b′)는 한자어 동사를 부정한 예인데, (1b′)는 (1b)의 예로 보아 피부정사에서 '-尸' 동명사형 'ン尸-/호-'의 표기가 생략되었다. (1c, c′)의 예는 고유어 동사를 부정한 것인데, (1c′)는 (1c)의 예로 보아 동명사어미 '-尸'의 표기가 생략되었다. 이러한 생략의 예가 『瑜伽師地論』과 「金光明經」 두 문헌에 나타나므로 당시에 이러한 생략 표기가 관용적으로 쓰였음을 알 수 있다.

(2) a. 異熟 無ㅗㄱ入ㅠ 故ノ 後ㅋ十 更ㅋ 續 不多ンㅋ/ 異熟이 없기 때문에 뒤에 다시는 계속되지 아니하며 <瑜伽 31:13-15>

b. 行非行ㄴ 法ㄴ 心ㅋ十 執著 不多ンア矣 是 波羅蜜義ㅐㄱ/ 行非行을 法을 마음에 執著하지 않는 것이 이 波羅蜜義이며 <金光 5:10>

c. 菩薩ㅋ 如ㅋノ今人 …… 觀ン 不多ノ王ㅐナㅣ/ 菩薩과 如한 것과 ……觀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舊仁 3:23-25>

(2a)~(2c)까지의 예들은 '용언어간 + 부정사'의 형식을 띤다. (2a)는 1음절 한자어 동사, (2b)는 2음절 한자어 동사 어간에 부정사가 연결되었다. (2c)는 피부정사가 동사 어간 형태인 '觀ン/觀ヒ'로 나타나는 예이다. 南豊鉉(1976:234)은 피부정용언이 부정사에 선행하면서 어간

형태로 쓰이는 것은 「계림유사」의 '擺泊 安理', 이두문의 '使內 不多'에서 보아 왔고 이것은 15세기의 '사도 아니ᄒᆞ-'에서 '-도'를 소거한 형식에 이어지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3) a. 國土ㅣ 法ᄂᆞᆯ 知ᄃᆞ 不ᄉᆞᄂᆞᄃᆞ矣ᄉᆞ [於]彼ㅣ十ㄱ 爲ᄒᆞᅀᆞᄆᆞ 妙法藏ᄂᆞᆯ 說ㅁᆞᄒᆞᄒᆞᄀᆞ/ 國土가 法을 알지 못하는 것이 그들을 爲해서는 妙法藏을 演說할 것이며 <華嚴 14:16>

b. 衆生ᄂᆞᆯ 隨ᄆᆞ 住ᄉᆞᄒᆞᄋᆞᄒᆞ 恒ㅣ 捨離ᄃᆞ 不ᄉᆞᄀᆞ/ 衆生을 따라 住하여서 항상 捨離하지 않으며 <華嚴 2:13-14>

예 (3a)와 (3b)는 부정사가 '不ᄉᆞ-'로 나타난다. 『華嚴經』에는 '不ᄉᆞ-'의 예가 25여 회 나오는데 2예를 제외하고는 한결같이 선행하는 피부정사에 동명사어미 '-ᄃᆞ'이 나타난다. 이것은 '-ᄃᆞ' 동명사에 이어지는 부정사 '不多ᄉᆞ-'에서 '多'의 표기를 생략하고 '不ᄉᆞ-'로 나타나는 것이다. 南豊鉉(1996a:31)도 부정사 '不ᄉᆞ-'는 '不多ᄉᆞ-'에서 '多'의 표기가 생략한 것으로 보았다.

(4) a. 量ㅣ 無ㄱ 佛ㅣ 華上ᄉᆞ十 坐ᄉᆞᄒᆞ 十方ᄉᆞ十 示現ᄂᆞᄃᆞᄆᆞ 不多偏ᄉᆞㅣᄂᆞᄀᆞ 靡ㅌᆞᄉᆞᄒᆞ 悉ᄉᆞ 能ᄒᆞ 諸ㄱ 衆生ㄹ 調伏ᄉᆞㅂᆞᄒᆞᄀᆞ/ 無量佛이 꽃 위에 앉으시어서 十方에 示現함에 있어 두루 하지 않음이 없어서 다 能히 모든 衆生을 調伏할 것이며 <華嚴 13:2-3>

b. 衆生ᄋᆞ 形相ㄱ 各ᄒᆞ 不多 同ㅣᄀᆞ 行業ᄉᆞ 音聲ᄉᆞᄂᆞᄉᆞ 亦ㄲ 量ㅣ 無ㄱ ㄹ/ 衆生의 形相은 각각 아니 같으며, 行業과 音聲이라 하는 것 또한 한량이 없거늘 <華嚴 15:1-2>

b′. 諸ㄱ 衆生ᄋᆞ 病 不多 同ㅣㄱᄂᆞㄹ 隨ᄆᆞ 悉ᄉᆞ 法藥ㄹ 以ᄉᆞ 而ᄆᆞ 對治ᄉᆞᄀᆞ/ 모든 衆生의 病(이) 아니 같은 것을 좇아 다 法藥을 써서 對治하며 <華嚴 17:15-16>

『華嚴經』에는 '不多ン-'가 '不多/안둘'로 나타나고, 부정사 '不多' 다음에 동사어간 'ン-/ᄒᆞ-'가 연결된 예는 나타나지 않는다. '不多ン-'는 앞의 예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부정사 뒤에 위치하나, '不多'은 (4a, b, b')의 예처럼 피부정사 앞에 위치한다. (4a)는 용언 '徧ㅅㅣノ기/徧ᄒᆞ이다 혼', (4b)는 '同ㅣ分/오히며', (4b')는 '同ㅣㄱのㄹ/오힌들'을 피부정사로 취한다. 南豊鉉(1996c:42)은 (4a)의 예에서 '不多 徧ㅅㅣノ기/안둘 徧ᄒᆞ이다 혼'을 피부정사로, '靡ヒ ㅋ尓/없어곰'을 부정사로 보았다. 'ン-'가 연결되지 않은 부정사 '不多'은 『華嚴經』에만 위의 세 예가 나타나는 것이어서 그 예가 한정된 감이 있지만 15세기 국어의 부정사 '아니'나 '몯'이 용언문 부정형식에서 피부정사에 선행하는 '단형 부정문' 형식에 이어지는 것이다. 단, 피부정사에 선행할 때는 '不多ン-'가 아니라 '不多'로 나타나는 것이 특징적이다. 김정아(2000:113)는 이 시대의 용언의 단형 부정은 부정사 '안둘(안ᄃᆞᆨ, 아니, 모둘)' 뒤에 피부정사(동사, 형용사)가 온다는 점에서 15세기 이후의 국어와 다르지 않음을 지적하였다. 그러나 실제로 석독구결 자료에서 부정사 '안ᄃᆞᆨ, 아니, 모둘'이 쓰인 용언의 단형 부정문 형식은 찾기 어렵다. 부정사 '안둘'이 쓰인 단형 부정도 『華嚴經』에서만 (4)의 예로 제시된 3예가 나타날 뿐이다. 따라서 이 시대의 용언의 단형 부정문 형식의 양상에 대해서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 南豊鉉(1976:232)은 향가에서 '不多'의 용례는 「균여전」에 4예, 「유사」에 1예가 나타나는데 향가의 용언문 부정에서는 부정사가 피부정사에 선행하는 형식만이 쓰였고 이 형식이 고대국어에서는 주가 된 것임을 지적하였다. 이의 설명으로 볼 때 부정사 '不多'은 신라시대에 용언문 부정사로 피부정사에 선행해서 주로 쓰이다가 고려시대로 넘어오면서 그 쓰임이 줄어들었고, 이 형태가 15세기 국어의 단형 부정문 형식으로 자리를 굳힌 것으로 생각된다.

(5) a. 常ㅣ 說法ン白ㅋ尸ム 無義ンㄱのしン尸 非多ンニ分/ 항상 說法

하오되 無義한 것을 하지 아니하시며 <舊仁 11:10>

b. 已ㅋ시 謂ᄒᆞᄉᆞ 一切 所作ᄉᆡ 已辦ᄉᆞᄒᆞᄂᆞᄀᆞᄅᆡᄒᆞᄉᆞᆫᄃᆞ 非ᄉᆞᄒᆞᄆᆞ/ 자기의 이른바 一切所作을 已辦하였다고 하지 아니하며 <瑜伽 19:7-9>

예 (5a, b)는 앞에서 부정사 '不ᄉᆞ-'이 쓰인 것에 대해 '非ᄉᆞ-'이 쓰였다. '不'과 '非'는 南豊鉉(1976:232)의 지적과 같이 한문 구성소기 때문에 달라진 것이다. '非ᄉᆞ-'은 '不ᄉᆞ-'과 같이 동사 부정사로 (5a)는 '無義ᄂᆞᆫᄀᆞ ᄋᆞᄉᆞᆫᄃᆞ/無義ᄒᆞᆫ ᄃᆞᆯᄒᆞᆯᄊᆡ', (5b)는 '已辦ᄉᆞᄒᆞᄂᆞᄀᆞᄅᆡᄒᆞᄉᆞᆫᄃᆞ/已辦ᄒᆞ아ᄒᆞᆫ이앗다ᄒᆞᆯᄊᆡ'을 피부정사로 취한다. 이때 'ᄉᆞᆫᄃᆞ 非ᄉᆞᄒᆞᄆᆞ-'는 현대어로 '하지 아니ᄒᆞ-'로 해석된다. 대부분의 용례는 '不ᄉᆞᄒᆞᄆᆞ-'로 나타나고, (5a, b)와 같이 『舊譯仁王經』과 『瑜伽師地論』에서 각각 1예씩만이 '非ᄉᆞᄒᆞᄆᆞ-'로 나타난다.

2.2 부정사 '不ᄋᆞᆺ-'와 '非ᄋᆞᆺ-' '未ᄋᆞᆺ-'

다음은 부정사 '不ᄋᆞᆺ-/안디-, 非ᄋᆞᆺ-/안디-, 未ᄋᆞᆺ-/안디-'에 대해서 살펴보자.

(6) a. [於]第一義ᄒᆞᅀᅡ 而ᅀᅳᆫ 二 不ᄋᆞᆺᄀᆞᄋᆞᅀᅳᆫ 故ᄂᆞᄅᆡᄒᆞᆫ/ 第一義에 二가 아닌 까닭이며 <舊仁 15:19-20>

a'. 相續假法ᄀᆞ 一 非ᄋᆞᆺᄒᆞᆷ 異 非ᄋᆞᆺᄒᆞᆷᄂᆞᆫᄂᆡ/ 相續假法은 一도 아니고 異도 아니고 한 것이다. <舊仁 14:6-7>

b. 二諦ᄀᆞ 常ᄂᆡ 卽ᄂᆞᆫᄀᆞᄇᆞ 不ᄋᆞᆺᄂᆡᄂᆞᆫᄀᆞᄂᆡᄒᆞᆫ/ 二諦는 항상 卽하는 것이 아닌 것이며 <舊仁 15:4>

b'. 諦現觀ㅅ 逆次因ᄒᆞ 依ᄒᆞᄉᆞ 說ᄂᆞᆫᄀᆞᄂᆡᄀᆞᅀᅳᆫ 順次因ᅀᅳᆫᄂᆞᆫᄇᆞ 非ᄋᆞᆺᄂᆡᄀᆞᄀᆞᆮ/ 諦現觀의 逆次因을 의지하여 說한 것이다. 順

次因으로 한 것이 아니로다. <瑜伽 23:10-11>

c. 外尸 動ンヨヴ尸 所ヨ 非矣ㅠ 四諦 說/ 外人의 움직이게 할 바 아니라 四諦를 說하며 <華嚴 20:11>

c′. 名下 圓滿ンヨホ 淸淨 鮮白ンセフ丁ノ仝 未矣ㅠ/ 이름하여 圓滿하여서 淸淨 鮮白하는 것이 아니라. <瑜伽 16:9-12>

d. 復ンフ 他方ヒ 量ノ亢 可ヒンフ 不矣リヒヒ 衆 有ヒナカ/ 또한 他方의 헤아림이 可한 것이 아닌 衆이 있었으며 <舊仁 2:1-2>

d′. 七 [於]思ノ亢[應]ヒンフ 不矣リフ 處ヨ十 强ヲ 其 心し 攝ンヨ 諸法し 思擇ンカンア矢ㅣ/ 일곱째는 생각할 만한 것이 아닌 곳에서 억지로 그 마음을 攝하여 諸法을 思擇하며 하는 것이다. <瑜伽 12:12-13>

(6a)~(6d′)까지의 예들은 부정사 '不矣-, 非矣-, 未矣-'가 체언을 피부정사로 하는 명사문 부정 형식으로, 부정사가 피부정사에 후행하여 나타난다. 예 (6a)는 명사 '二'를, (6a′)는 명사 '一, 異'를 부정한다. 명사가 토의 표기 없이 피부정사로 쓰이는 것은 『舊譯仁王經』에서 주로 나타난다(一 非矣カ 異 非矣ㅊろ・二 非矣フリアのフ <舊仁 14:8-9・15:5>). (6b)는 피부정사 '卽ンフヒ/卽ᄒᆞᆫᄂᆞ'에 의존명사 'ヒ/ᄂᆞ'를 포함하고 있는 예이다. 南豊鉉(1996c:26)의 지적과 같이 흔히 동명사형 'ンフ/ᄒᆞᆫ'이 '不矣/안디'의 피부정사로 쓰이는데 의존명사 'ヒ/ᄂᆞ'가 피부정사가 된 예는 드문 것이다. (6b′)는 (6b)와 같이 피부정사에 'ヒ'가 통합된 것은 동일하나 'ヒ'의 쓰임이 다르다. (6b′)의 'ヒ'는 의존명사가 아닌 어미로 쓰인 것이다. (6c)는 '所ヨ/바'를 핵으로 하는 명사구를 부정한다. 특히, 부정사 '非矣ㅠ/안디라'에 대해 그 한문 구성소만이 달라진 '未矣ㅠ/안디라'의 예 (6c′)가 『瑜伽師地論』에 1예 나타난다.

(6d)와 (6d')는 가장 많은 예를 보이는 형식으로 명사문 부정으로 파악한다. 南豊鉉(1976:233)도 (6d)의 예문에 대해 현대국어나 15세기 국어로서는 용언문 부정 형식으로 번역될 것인데 명사문 부정 형식을 취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박진호(1998:145)는 이와 비슷한 (6d")의 예문을 형용사문의 장형 부정을 명사문 부정과 비슷한 방식으로 형성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6) d". 思議ㅅ ᄒᆞᆫ ᄒᆞᄂᆞᆫ 不ᄋᆞᆯᄊᆞ 度量ㅅ ᄒᆞᆫ ᄒᆞᄂᆞᆫ 不ᄋᆞᆯᄋᆡᄅᆞ/ 思議함직한 것이 아니며 度量함직한 것이 아니니 <舊仁 11:23-24>

(6d)의 '-ㅅ ᄒᆞᆫ ᄒᆞᄂᆞᆫ/-홈 짓ᄒᆞᆫ'은 3문헌에서 '-ㅅ(ㄱ·ㄹ)ᄒᆞᆫ ᄒᆞᄂᆞᆫ/-홈(옴) 짓ᄒᆞᆫ'으로 나타나는데, 「金光明經」에서는 2예가 '傾動ㅅ ᄒᆞᆫ ᄒᆞᄂᆞᆫ <7:2-3>, 伏ㅅ ᄒᆞᆫ ᄒᆞᄂᆞᆫ <7:5-7>'으로 나타난다.

(7) a. 世間ᄂᆞᆫ 一ᄒᆞᆫ 異ᄒᆞᄂᆞᆫ 不ᄋᆞᆯᄋᆡᄀᆞᆫᄋᆞᆯ 譬ᄒᆞᆫᄂᆞᆫ 空谷ᄋᆞᄀᆞᆺ 響 如ᄒᆞᆫᄃᆞᆫᄋᆞᄀᆞ/ 世間은 하나이며 異한 것이 아닌 것이 비유하면 빈 골짜기의 메아리 같아서 <金光 13:14-15>

b. 能ᄒᆞᆫ 法ᄋᆞᆯ 永ᄃᆞᆫ 滅ᄒᆞᄂᆞᆫ 不ᄋᆞᆯᄒᆡᄀᆞᆫ ᄋᆞᆫᄃᆞᆯ 知ᄒᆡᄒᆞᆫᄀᆞ/ 能히 法이 영원히 滅하는 것이 아닌 것을 알 것이며 <華嚴 11:15>

c. 彼 微塵ᄂᆞᆫ 亦ᄒᆞᄂᆞᆫ 增ᄒᆞᄂᆞᆫ 不ᄋᆞᆯᄀᆞᆫᄃᆞᆯ [於]一ᄀᆞᄋᆞᆨ 普ᄀᆡ 難思ᄉᆞᆫ 刹ᄃᆞᆯ 現ᄒᆞᆫᄃᆞᆫᄋᆞᄀᆞ/ 저 微塵은 또한 增하는 것이 아니거늘 하나의 微塵에 널리 難思의 刹을 나타내시며 <華嚴 15:8-9>

(7a)~(7c)까지의 예들도 부정사 '不ᄋᆞᆯ-'가 오는 명사문 부정 형식으로, 한결같이 피부정사에 동명사 어미 '-ᄀᆞ'이 나타난다. 南豊鉉(1996a:31)은 석독구결들에서는 '不ᄒᆞ'이 동사를 부정하고 '不ᄋᆞᆯ'가 명사를 부정하여 동사부정법과 명사부정법이 구별되었으며, 이 시대는 '-

ᄑᆞ' 동명사와 '-ㄱ/(으)ㄴ' 동명사가 있는데 전자는 동사부정법으로 부정하고 후자는 명사부정법으로 부정함을 지적하였다.

(8) 第一義ᄂᆡ 中ᄋᆞ十 世諦 有ᄒᆡᄋᆞᄆᆞᄅᆞᄉᆞᄋᆞ 不矣ㅣᄅᆞᄀᆞᄇᆞᄋᆞ/ 第一義 중에 世諦가 있다고 하겠습니까? 아닌 것입니까? <舊仁 14:18>

(8)의 '不矣ㅣᄅᆞᄀᆞᄇᆞᄋᆞ/안디이온ᄂᆞ아'는 부정사 '不矣-'에 계사 'ㅣ-/이-', 의도법 선어말 어미 '-ᄅᆞ-/-오-', 동명사형 어미 '-ㄱ/-ㄴ'과 의존명사 'ᄇᆞ/ᄂᆞ'가 통합한 구성체에 의문 첨사 '-ᄋᆞ/-아'가 연결되어 의문 부정문을 이룬다. 이 의문 부정문은 『舊譯仁王經』에서만 나타나는 예로 의미상으로 문장 부정이 된다. 다른 구결 자료에서는 보이지 않으나 15세기에는 이 형식이 그대로 계승된 다음과 같은 예가 나타난다.

(9) 便安히 行ᄒᆞ시ᄂᆞ니잇가 아니잇가 四大調和ᄒᆞ시니잇가 아니잇가 (安樂行ᄒᆞ시ᄂᆞ니잇가 不ㅣ잇가 四大調和ᄒᆞ시니잇가 不ㅣ잇가) <法七, 20b>

(9)는 부정사 '아니'가 '아니잇가'의 형태로 의문 부정문을 이룬다.

2.3 부정사 '不ㅅ-'과 '未ㅅ-'

南豊鉉(1996b:243)은 부정사 '未ㅅ'은 동사문 부정뿐만 아니라 명사문 부정에도 쓰여 부정소 '不ᄉᆞ'과 차이가 있음을 지적하였으나, 부정사 '不ㅅ-/안ᄃᆞᆨ-'과 '未ㅅ-/안ᄃᆞᆨ-'이 실제로 명사문 부정 형식으로 쓰인 예는 나타나지 않는다. 부정사 '不ᄉᆞ(非ᄉᆞ)'처럼 용언문 부정 형식으로 쓰인 예만이 나타난다.

(10) a. 所對治ㅣ 法ㅣ 能ᄒᆞ 勝三摩地ㅣ 得ᄆᆞ 不ㅎᄂᆞ[令]ㅣᄉᆞᆫ 有ㅣ/
所對治의 法이 能히 勝三摩地를 얻지 못하게 하는 것이 있다. <瑜伽 13:6-7>

a′. 方便ㄹ 得ᄆᆞ 未ㅎᄂᆞㅌᆞㄱᆞᆨ 無明ㅣ 因 [爲]ㅣᄆᆞ入ㄹᄂᆞᄒᆞᄆᆞ/ 方便을 얻지 못하는 것도 無明이 因이 되기 때문에 <金光 7:25-8:2>

b. 聞持陁羅尼ㅣ 具ᄆᆞ 不ㅎᄂᆞㅌᆞㄱᆞᆨ 無明ㅣ 因ᄂᆞᄂᆞᄒᆞᄆᆞ/ 聞持陁羅尼를 갖추어 하지 아니하는 것도 無明을 因하여 하는 것이다. <金光 7:18-20>

b′. 二者 福德火ㅣ 具ᄆᆞ 未ㅎᄂᆞㄱᆞㅣᆞㅓㄱᆞ 得ᄒᆞᆷ 安樂 不ᄒᆞᄂᆞᆫᄀᆞ/ 둘째는 福德이 갖추지 않은 경우에는 능히 安樂하지 않으며 <金光 3:13>

(10a)~(10b′)까지의 예들은 '-ᄆᆞ' 동명사형을 피부정사로 하는 용언문 부정 형식이다. 특히, (10a)와 (10a′)는 동일한 피부정사 '得ᄆᆞ/얻읋'에 부정사 '不ㅎ-'과 '未ㅎ-'이 각각 다르게 연결되었다. (10b)와 (10b′)도 같은 피부정사 '具ᄆᆞ/ᄀᆞᄌᆞᆷ'에 부정사만이 '不ㅎ-'과 '未ㅎ-'으로 다르게 나타난다. 이로써 부정사 '不ㅎ-'과 '未ㅎ-'은 부정법상에 다른 특징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ᄆᆞ' 동명사형을 부정하는 부정사로서 서로 수의적으로 교체되어 쓰임을 알 수 있다.

(11) a. 謂ㄱ 不淨ㅣ 觀 不ㅎᄂᆞᄒᆞᆷ 淨相ㅣ 隨ㄴ 轉ᄂᆞᄆᆞ入ㅣ / 이른바 不淨한 것을 살피지 않으면서 淨相을 따라 움직이는 것을 <瑜伽 9:23-10:2>

b. 諸佛ㄹ 親近 未ㅣᄒᆞᄋᆞᄂᆞㄱᆞㄱ 得ᄒᆞᆷ 是 金光明經ㄹ 聽聞 不ㅎᄂᆞᄒᆞᄒᆞㄱᆞㅅᄆᆞᄂᆞᆫ/ 諸佛을 親近 아니하는 것은 능히 이 金光明經을 聽聞할 수 없기 때문이다. <金光 14:1-3>

c. [於]勝定ᄒᆞᅀᆞ 自在ᄂᆞㄱᆞ入ㅣ 獲得 未ㅎᄂᆞㄱᆞㅣᆞㅓᅀᆞ 中路ᄒᆞᅀᆞ 止息

ᄂᆞᆷᆞ/ 勝定에 自在한 것을 獲得하지 못했으니 中路에 止息하며 <瑜伽 18:16-17>

(11a)~(11c)까지의 예들은 '용언어간 + 부정사'의 형식을 띤다. 예(11a)는 1음절 한자어 동사, (11b)는 2음절 한자어 동사 어간에 부정사가 연결되었다. (11c)는 (11a, b)에 부정사 '不ㅅ-'이 온 것에 대해 부정사 '未ㅅ-'이 연결된 점에서 차이가 난다. 한자어 동사 어간에 부정사가 연결되는 용언문 부정 형식은 부정사 '不ᄉᆞ'의 경우와 같다. 부정사 '不ᄉᆞ'은 두 문헌에 걸쳐 주로 나타나는데 부정사 '不ㅅ(未ㅅ)'은 『瑜伽師地論』에서 그 예를 쉽게 찾을 수 있다.

(12) a. 修所成ㄴ 若知ㅅ 若見ㅅㄴ 淸淨ᄒᆞ 轉 不ㅅㄴ[令]ㅣㅏㅎㄴㅣ/ 修所成의 지혜와 또는 소견을 깨끗하게 옮겨가지 않게 할 수 있다. <瑜伽 12:14-16>

b. 方便作意ㅣㅓ 善巧 不ㅅㄴᄉᆞㄴ 性ㅣㄱ 恭敬ㄴᆞㅣㅗ 勤ㄴ 請問 不ㅅㄴㄱㅅㄴ [由]ㅣㄱㅅᄆ 故ㄴㄴᄉᆞㅅ/ 方便作意에 善巧하지 않은 性이니 恭敬하여 부지런히 請問하지 않기 때문인 것과 <瑜伽 10:4-6>

(12a)와 (12b)는 '용언어간 + 부정사'의 용언문 부정 형식 앞에 부사가 오는 예들이다. (12a)는 1음절 한자어 동사 앞에 부사 '淸淨ᄒᆞ/淸淨히'가, (12b)는 2음절 한자어 동사 앞에 부사 '勤ㄴ/브즈런'이 왔다. '-ㄷ' 동명사형이 나타나는 용언문 부정 형식 앞에도 부사가 온다(必ㅅ 壞ᄉᆞㅣㄱㄷ 不ㅅㄴㄷㅅᄆ<瑜伽 22:6-8>·能 攝持ㄷ 未ㅅㄴㅏㄱㄱㅏ<金光 8:4-6>). 그러나 '-ㄷ' 동명사형을 피부정사로 하는 용언문 부정 형식보다 '용언어간 + 부정사'의 용언문 부정 형식 앞에 부사가 위치하는 예들이 더 쉽게 발견된다. (12a, b)의 예 이외에 부사 '恒ㅣ·善 <瑜伽

10:19-20(10:22-23)·26:23-27:1>의 예를 더 확인할 수 있다.

(13) a. 諸煩惱行ヲ 動 令ㅣ尸 能矣 不ㅅ/ㅈ/ㅎ/ㄱㅅ/ㅁ 故ㅣ 是故ㅁ 八地ㄴ 說尸/ 諸煩惱行의 動하게 하지 않기 때문에 是故로 八地를 일러 <金光 7:11-12>

b. 此 障导ㄴ 由ㅋ [於]一切種ㅋ + 出離 能 不ㅅ/ㅈ/ㅎ/ㄱㅅ/ㅁ/ㅿ/ 이 障导를 말미암아 온갖 것에서 能히 벗어나지 못하며 <瑜伽 8:8>

c. 五 淨信ㄴ 遠離ㅅ/ㄱㅅ/ㅅㄴ 由ㅋ 常ㅣ 修 能 不ㅅ/ㅈ/ㅎ/ㄱㅅ/ㅁ/ㅿ/ 다섯째는 淨信을 遠離한 것으로 말미암아 항상 닦음을 잘하지 못하며 <瑜伽 10:21-22>

(13a)~(13c)까지의 예들은 선행하는 피부정사와 후행하는 부정사 사이에 부사가 위치한다. (13a)는 '-尸' 동명사형이 나타나는 용언문 부정 형식에서 피부정사 '動 令ㅣ尸/動ᄒᆞᆯ'과 부정사 '不ㅅ' 사이에 부사 '能矣'가 왔다. (13b)와 (13c)는 '용언어간 + 부정사'의 부정 형식에서 피부정사와 부정사 사이에 부사가 온다. 예 (13b)는 피부정사인 2음절 한자어 동사와 부정사 사이에 부사 '能'이 왔다. 피부정사와 부정사 사이에 부사가 오는 예들은 '-尸' 동명사형이 나타나는 용언문 부정 형식보다 '용언어간 + 부정사'의 용언문 부정 형식에서 그 예를 더 쉽게 찾을 수 있다. 특히, (13b)와 같은 예들은 『瑜伽師地論』에 11여 회 나오는데 한결같이 피부정사와 부정사 사이에 부사 '能'이 온다. 피부정사와 부정사 사이에 '能'이외에 다른 부사가 오는 예는 나타나지 않는다. 피부정사 앞에는 '必ㅅ, 淸淨ᄒᆞ, 勤ㄷ, 恒ㅣ, 善, 常ㅣ' 등의 다양한 부사가 위치하는 것으로 보아 피부정사와 부정사 사이에 올 수 있는 부사는 제약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13c)는 피부정사와 부정사 사이에 부사 '能'이 오고 다시 피부정사 앞에 또 다른 부사가 위치하는 예로 피부정사인 '修'앞에 부사 '常ㅣ/常이'가 왔다.

용언문 부정 형식에서 피부정사와 부정사 사이에 부사가 위치하는 예들은 고려시대 석독구결 자료에 나타나는 이 시대 부정법의 한 특징으로 간주된다.[4] 15세기에는 이와 같은 예들이 나타나지 않는다.

(14) a. 히와 돌와 별왜 <u>다 붉디 아니ᄒᆞ며</u> <月二, 15a-15b>
b. 네 <u>츠기 너기디 말라</u> <月二十五, 9b>

예 (14a, b)는 용언문 부정 형식 중 장형 부정문 형식의 용언어간 앞에 부사가 위치한다. 이는 (13)의 예들과는 다르다. 즉, (14a)의 '붉디'와 부정사 '아니', (14b)의 '너기디'와 부정사 '말라' 사이에 부사가 오는 예들은 찾을 수 없다.

석독구결의 용언문 부정 형식에서 부정사 '不多(非多), 不矣(非矣/未矣), 不ㅅ(未ㅅ)'에 선행하는 피부정사에 연결되는 동명사형 어미 '-ㄕ'과 '-ㄱ'은 15세기 국어의 용언문 부정 형식 중 '용언어간 + -디 + 아니(몯 · 말)'의 장형 부정문 형식에서 보문자 '-디'와 같은 구실을 한다. 동명사형 어미 '-ㄕ'과 '-ㄱ'이 반드시 용언어간에 연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부정사 앞에 위치한다는 점에서는 같다. 15세기에는 '용언어간 + -디'와 부정사 '아니, 몯, 말' 사이에 어떤 형태도 개입된 예를 찾을 수 없고, 보문자 '-디'가 생략되는 경우도 없다. 그러나 석독구결에서는 피부정사와 부정사 사이에 부사가 개입된 (13)과 같은 예들이 나타나며 보문자 '-디'와 같은 구실을 하는 '-ㄕ, -ㄱ' 동명사형도 생략 가능하다. 따라서 15세기에 용언의 장형 부정문 형식으로 정착되기 이전 단계인 용언문 부정 형식에서는 그 형식을 이루는 구성 요소들간의 관계가 15세기보다는 긴밀하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

---

4) 南豊鉉(1976:238)은 15세기 이전의 부정법을 다루면서 용언문 부정에서 피부정사와 부정사의 중간에는 이들을 연결시키는 형식 요소가 없이 쓰이는 경우도 있으며 그 사이에 서법을 나타내는 요소나 부사들이 오지 않는다고 하였다.

(15) 未來ᄋᆞᆫ 是礙ㅣ 更ᄋᆞ 生ㄱ 不ᄒᆞᆫᄃᆞ시 更ᄋᆞ 生 不ᄒᆞᄉᆞㅣᄉᆞᆫᄃᆞ
智시 得ᄃᆞ 未ᄒᆞᆫᄐᆞㄱᆞ가 無明ㅣ 因 [爲]ㅣᄃᆞ시ᄂᆞᆫᄃᆞ/ 未來에 이 막힘이 다시 생기지 아니하는 것을 다시 생기지 않게 하는 智慧를 얻지 몯 하는 것도 無明이 因이 되기 때문에 <金光 8:8-10>

(15)는 부정사 '不ㅎ'과 '未ㅎ'이 오는 용언문 부정 형식에서 동사인 피부정사에 동명사형 어미 '-ㄱ'과 '-ᄃᆞ' 그리고 그 토가 생략된 것을 보이는 예이다. '-ᄃᆞ' 동명사형은 앞서 (10)의 예들로 확인되었지만 부정사 '不ㅎ'이 오는 용언문 부정 형식에서 피부정사에 동명사형 어미 '-ㄱ'이 연결된 예로써는 예외적인 것이다. 피부정사 '生'은 앞선 '生ㄱ/난'의 표기로 보아 동명사형 어미 '-ㄱ'이 생략되었음을 알 수 있다. 비록 1예이기는 하지만 부정소 '不ㅎ'은 '-ᄃᆞ' 동명사뿐만 아니라 '-ㄱ' 동명사도 부정하는 부정사여서 '-ᄃᆞ' 동명사만을 부정하는 부정사 '不ᄉᆞᆼ'과 '-ㄱ' 동명사만을 부정하는 부정사 '不ᄋᆞᆺ'와 차이가 있다.

2.4 부정사 '未ㅣ-'

南豊鉉(1996a:31)은 부정사 '안돌'이나 '안디'는 모두 '아니(ᄒᆞ-)'로 바뀌었음을 지적하였는데, 부정사 '未ㅣ-'는 바로 '아니'로 독음되므로 15세기 국어의 부정법을 대표하는 순수한 부정사 '아니'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15세기 국어의 '아니'는 명사문 부정과 용언문 부정에 두루 쓰였으나, 부정사 '未ㅣ-'는 명사문 부정 형식으로 쓰인 예는 찾을 수 없고, 용언문 부정 형식으로 쓰인 예도 많이 나타나지 않는다. 『舊譯仁王經』과 『華嚴經』에 각각 1예, 『金光明經』에 3예, 『瑜伽師地論』에 9예가 나타날 뿐이다.

(16) a. 菩薩ㅣ 成佛ㅅ尸 未ㅢㅅㅌㄴ 時十 菩提ㄴ 以ㅣㅋ 煩惱 爲ㅣ ナ尸ㅅ/ 菩薩이 成佛하지 아니 한 때에 菩提로서 煩惱를 삼는 것이다. <舊仁 15:18-19>

b. 衆生ㄱ 資身ㄷ 具ㄹ [有]ㅐ尸 未ㅢノㄱのㄹ 見ロハㄱ 是ㅅㄷ ンㄱ 時十 菩薩ㄱ 工匠ㅣ尸 [爲]のㄹンカ/ 衆生이 資身할 도구를 갖지 못한 것을 보고서 이런 때에 菩薩은 工匠이 되며 <華嚴 19: 12-13>

b′. 請問ㄴ 依ンㄱㅅ〻 故ノ 昔尸 聞白尸 未ㅢンラㄷノㄱ 甚深法義ㄴ 聞カ/ 請問을 依하기 때문에 옛날에는 듣지 못하였었구나 하는 甚深法義를 들으며 <瑜伽 7:3-4>

(16a)~(16b′)까지의 예들은 '-尸' 동명사형을 피부정사로 하는 용언문 부정 형식이다. 부정사 '未ㅢ-'가 오는 피부정사에 동명사형 어미 '-ㄱ'이 연결된 예는 나타나지 않는다. (16a)는 한자어 동사 '成佛ンㅌ/成佛홇'을, (16b, b′)의 예는 고유어 동사 '[有]ㅐ尸/둟, 聞白尸/듣숣옳'을 피부정사로 취한다. 특히, 예 (16b)와 동일한 피부정사에 부정사 '未ハ-'이 오는 예들이 나타난다(證ノㅌ 所ㄴ [有]ㅐ尸 未ハンㄱㅅ〻 故ノ/證明할 바를 갖지 아니하였으므로 <瑜伽 18:2-4>). 따라서 부정사 '未ㅢ-'는 '未ハ-'과 서로 수의적으로 교체되어 쓰임을 알 수 있다. 같은 유형의 부정사 '不多(非多)-'은 이와 같은 예문이 발견되지 않으므로 그 쓰임의 양상을 단정지어 말할 수는 없으나, 부정사 '不多(非多), 不ハ(未ハ), 未ㅢ'는 '-尸' 동명사형을 피부정사로 취하는 용언문 부정 형식을 나타내는 부정사들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을 갖는다. 예 (16b′)는 동명사형 어미 '-ㅌ' 앞에 선어말 어미 '白/숣'이 왔다. 이는 15세기 국어의 용언의 장형 부정문 형식에서 용언어간과 보문자 '-디' 사이에 겸양 표현의 접사 '-숩-, -줍-' 정도가 게재되어 나타나는 것과 관계한다.

(17) a. 누늘 잢간도 <u>브리숩디 아니터니</u> <月二十一, 31b>
b. 時急히 자바 긋긋오몬 <u>좃줍디 아니커늘</u> <法二, 202a>

이와 같은 사실은 이 시대의 용언문 부정 형식에 나타나는 동명사형 어미 '-ᄆᆞ'이 15세기 국어의 용언의 장형 부정문 형식에서 보이는 보문자 '-디'와 같은 역할을 한다는 필자의 주장을 뒷받침한다.

다음은 부정사 '未ㅣ-'가 '용언어간 + 부정사'의 형식을 띠는 예들이다.

(18) a. 善根ㄹ <u>成熟 未ㅣᄒᆞ</u> 諸佛ㄹ <u>親近 未ㅣᄒᆞᄂᆞᆫᄀᆞᆫ</u> 得ᄒᆞᄒᆞ 是金光明經ㄹ 聽聞 不ㅎᄂᆞᆫᄂᆞ ᄒᆞᄀᆞ ᄉᆞᄆᆞᅀᆞ/ 善根을 成熟 아니하며 諸佛을 親近 아니하는 것은 능히 이 金光明經을 聽聞할 수 없기 때문이다. <金光 14:1-3>
b. 若 三摩地ㄴ 得ᄒᆞᄀᆞᅀᆞ 而ᄀᆞ <u>圓滿 未ㅣᄒᆞ</u> 亦 <u>自在 未ㅣᄂᆞᆫᄒᆞᄂᆞᆫᄀᆞᆫ</u> 彼ᄀᆞ 或 止相ㄴ 思惟ᄂᆞᆫᄒᆞ/ 만약 三摩地를 얻었는데 圓滿하지 않으며 또 自在하지 않으며 하다면 저것은 혹 止相을 思惟하며 <瑜伽 24:6-8>

(18a, b)의 '未ㅣᄒᆞ/아니졔(져)'는 '未ㅣᄂᆞᆫᄒᆞ/아니ᄒᆞ졔(져)'에서 'ᄂᆞᆫ/ᄒᆞ-'의 표기가 생략된 것이다. 특히, (18b)의 '圓滿 未ㅣᄒᆞ'는 '圓滿 未ㅣᄂᆞᆫᄒᆞ <瑜伽 27:11-14>'의 예가 나타나서 'ᄂᆞᆫ-'의 생략이 문증된다.

2.5 부정사 '無(无), 靡, 莫'과 '無(无)ᄂᆞᆫ-'

15세기 국어에선 '없-'이 '아니, 몯, 말-'과 같은 부정사의 기능을 하지 않으나, 석독구결 자료에서는 '無(无), 靡, 莫/없-'이 '無(无)ᄒᆞ-'와 함께 부정사로서 기능한다.

부정사 '無(无)'과 '無(无)ᄂᆞᆫ-'는 명사문 부정 형식과 용언문 부정 형

식에 두루 쓰였다.

다음은 부정사 '無(无)'과 '無(无)ㅅ-'가 명사문 부정 형식으로 쓰인 예들이다.

(19) a. 法王ㄱ 上 無ᄒᆞ 人中ㅅ ᄒᆞᄂᆞᆫ 樹ㅣ ᄀᆞᆫ下 大衆ᄂᆞᆯ 覆蓋ㅅ白ᄀᆞᆫ ᄃᆞᆷ 量 無ᄒᆞᄀᆞ 光ᄆᆞᆫㅅᄀᆞᆫᄀᆞᆫ/ 法王은 위가 없어 人中의 樹이시어 大衆을 覆蓋함에 있어 量 없는 빛으로 하시며 <舊仁 11:9>

b. 法界ㄱ 分別 無ᄒᆞᄆᆞᄀᆞ 是故ᄆᆞ 異ㅅᄀᆞ 乘 無ᄒᆞᄆᆞᄀᆞᄂᆞᆯ 衆生ᄂᆞ 度ㅅ {爲}ᄉᆞㅅᄀᆞᆫᄃᆞᆯᄉᆞᄆᆞ 故ㅣ/ 法界는 分別 없으니 이 때문에 異한 乘이 없거늘 衆生을 제도하고자 하시므로 <金光 13: 16-17>

c. 彼ㄱ 是 [如]ᄉᆞᆫ 樂斷ㅅᄒᆞᆫ 樂修ㅅᄒᆞᆫ 心ᄀᆞ ᄒᆞ 貪ㅗ 恚ㅗㅣ 癡ㅗ 无ᄒᆞᆫ 正念現前ㅅᄒᆞᆫ/ 그는 이같이 樂斷하며 樂修하며 마음에 貪과 恚하는 것이 없고 正念現前하며 <瑜伽 19:10-11>

d. 皆 是ㄱ 妄見ㅣㄱᄂᆞᆫ 能ᄀᆞᆫ 度ㅣᄃᆞᆷ 餘ᄅᆞᆯ 無ㅅᄀᆞᆫㄱㅣㅅᄃᆞᆯᄉᆞᆺ 是 波羅蜜義ㅣᄀᆞᆫ/ 이것은 모두 妄見인 것을 能히 제도함에 있어서 남음이 없도록 하는 것, 이것이 波羅蜜義이며 <金光 5: 18-19>

(19a)~(19d)까지의 예들은 부정사 '無(无)'과 '無(无)ㅅ-'가 체언을 피부정사로 하는 부정문 형식으로, 부정사가 피부정사에 후행하여 나타난다. (19a)는 명사 '上, 量'을 피부정사로 취한다. '量 無ᄒᆞᄀᆞ/그지 업슨'은 『舊譯仁王經』과 『華嚴經』에 15여 회 나타나는데 『華嚴經』에는 '量ㅣ 無ᄀᆞ'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瑜伽師地論』과 『金光明經』에는 '量無(无)ㅅᄀᆞ'으로, 부정사 '無(无)ㅅ-'가 연결되어 나타난다. (19b)의 부정사 '無ᄒᆞᄆᆞᄀᆞ/없곤'과 '無ᄒᆞᄆᆞᄀᆞᄂᆞᆯ/없곤ᄋᆞᆯ'은 어간 '無ᄒᆞ-/없-'에 확인법어미 '-ᄆᆞ/고', 동명사어미 '-ᄀᆞ/ㄴ'과 목적격조사 '-ᄂᆞ/ᄋᆞᆯ'이 통합한 구성체로 각각 명사 '分別'과 명사구 '異ㅅᄀᆞ 乘'을 피부정사로 취한다.

예 (19c)와 (19d)는 명사구를 피부정사로 취하는데(19c)는 공동격조사 'ㅗ/여'로 연결된 명사구를 부정한다. (19d)는 부정사 '無(无)ㅅ-'가 오는 예로 '餘ㄹ'을 피부정사로 취한다.

다음은 부정사 '無(无)'과 '無(无)ㅅ-'가 '-ㄷ' 동명사형을 피부정사로 취하는 예들이다.

(20) a. 增ㅅ ㄷ 無ᄉᆞ 亦ㅣㄱ 盡ㄷ 無ㄱ 如ᄒᆞ/ 增함이 없으며 또 다함이 없음과 같이 <華嚴 14:14>

b. 獨步ㅅ ㄷㅁ 畏ㅅ ㄷ 無ᄒᆞ 戰怖ㅅ ㄷ 有ㅅㄱ 無ᄒᆞ 如ᄒᆞ/ 獨步함에 있어 두려워함이 없으며 戰怖함이 없으며 한 것과 같이 <金光 2:2-4>

c. 若 能 邊ㄷ 無 法ㄹ 開演ㅅㅂㄷㅇㄱ/ 만약 能히 가 없는 法을 開演하는 것이라면 <華嚴 11:18>[5]

d. 數數ㅣ 聽聞ㅅㅈㅎ 間斷ㅅ ㄷ 无ㅅㄱㅅㅁ 故ㅅ [於]彼 法義ㅈ ㅓ 轉ㅣ 得ㅎ 明淨ㅅᄉᆞ/ 자주 聽聞하여서 間斷함이 无하므로 그 法義에(대해) 점차 능히 明淨하며 <瑜伽 7:4-5>

(20)은 '-ㄷ' 동명사형을 피부정사로 하는 용언문 부정 형식이 명사문 부정 형식으로 해석되는 예들이다. (20a)의 '盡ㄷ 無ㄱ'은 15세기에 '다ᄋᆞᆫ 업슨'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단순히 고려시대의 동명사형이 남은

---

5) 예 (20c)의 '邊ㄷ'의 'ㄷ'을 필자는 피부정사에 나타나는 동명사어미로 파악하였으나, 南豊鉉(1996a:42)은 이 邊ㄷ 다음에는 예외 없이 부정사 '無/없-'이 온다는 제약을 가지고 있으며 부정사 '無/없-' 앞에 오는 ㄷ가 'ㅅ'이 아니고 'ㄹ'이라면 동명사어미일 것이 예측되는데 현재로서는 그 가능성이 약함을 지적하였다. 「金光明經」에는 '邊'이 토를 생략한 채 부정사 '無ㅅ-'가 연결되어 나타난다.

量 無ᄉᆞ 邊 無ㅅㄱ 比丘ㄱ 法眼淨ㄹ 得ㅂㄷᄉᆞ/ 헤아릴 수 없으며 끝없는 比丘는 法眼淨을 얻는 것이며 <金光 14:22-24>

것이 아니라 부정법적 표현이 화석화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南豊鉉, 1996a:33). (20b)는 피부정사 '戰怖ㅅ尸/戰怖홇'과 부정사 '無ㅎ/없져' 사이에 '有ㅅㄱ/有호'이 게재되어 나타난다. (20c)는 부정사 '無'에 토가 생략되었다. '是ㅣ 如ᄒᆞ 邊尸 無ㄱ 大功德乙/ 이와 같이 가 없는 大功德을 <華嚴 9:8>'과 같은 예가 동일 문헌에 나타나므로 '無'에 '-ㄱ'이 생략된 것으로 보인다. (20d)는 부정사 '无ㅅ-'가 '-尸' 동명사형을 피부정사로 취하는 예이다.

다음은 부정사 '無'과 '無ㅅ-'의 피부정사로 '-ㄱ' 동명사형이 나타나는 예들이다.

(21) a. 今ㄴ 如ᄒᆞᆫ 異ㅅㄱ 無ᄂᆞ니ᄉᆞ/ 지금과 같이 다른 바가 없으시며 <舊仁 2:5-6>

a'. 一切法ㄱ 異ㅅㄱ 無ㅅㄱㅅᄇᆞ [故]ㄴ/ 一切의 法은 異함이 無하기 때문이다. <金光 14:20-22>

b. [於]一切 衆生ㅋ 心乙 一ㄱ 念ᄒᆞ十 悉ᄒᆞ 知ᄀᆞ尸ㅁ 有餘ㅅㄱ 無ㅣㅅᄇᆞᄐᆞᄉᆞ/ 一切 衆生의 마음을 한 念에 다 앎에 있어 有餘함(남음)이 없이 할 것이며 <華嚴 13:15-16>

(21)은 '-ㄱ' 동명사형을 피부정사로 하는 용언문 부정 형식이 명사문 부정 형식으로 해석되는 예들이다. 이는 4문헌에 걸쳐 나타나나, '-尸' 동명사형을 피부정사로 하는 (20)의 예들과 같이 많은 예가 다양하게 나타나지는 않는다. 예 (21a)와 (21a')는 동일한 피부정사 '異ㅅㄱ/異호'에 부정사 '無'과 '無ㅅ-'가 연결되었다.[6] 고유어 '無'과 한자어 '無ㅅ-'가 어형은 다르지만 같은 내용을 표현하는 부정사로 두 부정사가 기능상 차이가 없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21b)는 부정사 '無'의 피부

6) 피부정사 '異ㅅㄱ'에 부정사 '不ᄉᆞ'가 연결된 예는 앞서 (7a)로 그 예를 제시한 바 있다.

정사로 '有餘ᄉᆞᆨ/有餘ᄒᆞᆫ'이 나타난다. 동일 문헌인 『華嚴經』에 '餘ᄉᆞᆨ 無ㅣᆫᄇᆞᆸ立 <4:1>·餘ᄉᆞᆨ 無ㅣᆫᄂᆞᆺᄒᆞᄉᆡ<18:18-19>'와 같은 예가 나타나는데, '餘ᄉᆞᆨ'은 '有餘ᄉᆞᆨ'과 의미상 차이가 나지 않는다.[7] 부정사 '無(无)'과 '無(无)ᄉᆞ-'는 예 (21) (22)에서 보는 바와 같이 '-ᄆᆞ' 동명사뿐만 아니라 '-ᄀᆞ' 동명사도 부정하는 부정사이다.

끝으로 다음과 같은 예를 살펴보자.

(22) a. 是ㅣ 如ᄉᆞᆨ 三昧神通ᄋᆞᆫ 相乙火 一切 天人ㅣ 能 測 莫ᄋᆞᆫᄂᆞᆫ/ 이 같은 三昧神通의 相을 一切 天人이 能히 측량 못한다. <華嚴 17:18-19>

b. 世ㅣ十 堪ㅣ矣ᄉᆞᆼᄉᆞᆷ 靡ᄋᆞᆫᄂᆞᆫᄌᆞᆫ 彼乙 見ㅣᄆᆞ 已ᄒᆞᄉᆞᆫᄆᆞ 皆ᄋᆞᆫ 調伏 令ㅣᆫᄆᆞᄇᆞᆸ分/ 세상에 맡기는 것이 없이 하여 그를 보이고 다 調伏케 하며 <華嚴 20:4-5>

c. 一切 種 皆ᄋᆞᆫ 無ᄉᆞᆨㅣᆫᄉᆞᆷᄂᆞᆫᄆᆞᄇᆞᆫᄂᆞᆫ/ 一切의 種이 다 無한 것이로구나 라고 하시는 것이다. <金光 13:12-13>

예 (22a)와 (22b)는 앞에서 부정사 '無(无)/없-'이 쓰인 것에 대하여 '莫ᄋᆞᆫ/없-'과 '靡ᄋᆞᆫ/없-'이 쓰인 데서 차이가 있다. (22c)는 부정사 '無ᄉᆞ-' 앞에 부사 '皆ᄋᆞᆫ/닷'이 온다. 이는 15세기의 다음과 같은 예들에서도 확인된다.

---

7) 이는 예 (20c)에서 피부정사 '邊ᄆᆞ'에 대해 같은 문헌인 『華嚴經』에 '有邊ᄆᆞ'이 피부정사로 나타나는 것과 관계한다.

大光明乙 放ᄂᆞᆨᄆᆞᆷ 有邊ᄆᆞ 無ㅣᆫᄉᆞᆷ/ 大光明을 放射하되 有邊 없이하며 <華嚴 15:3-4>

역시 의미상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23) a. 菩薩이 아ᄆᆞ라토 아니ᄒᆞ시고 <月四, 7a>
b. 내 아래브터 사ᄅᆞᆷ 주규ᄃᆡ 올히 몯호니 <月二十五, 87b>
c. 이베 므디 말며 두 소ᄂᆞ로 어러비 말라 <月二十五, 27a>

예 (23a, b, c)는 (22c)와 같이 부정사 앞에 부사가 오는 예들이다. 부정사 '아니, 몯, 말-' 앞에 부사 '아ᄆᆞ라토, 올히, 어러비'가 왔다. 15세기에는 부정사 앞에 부사가 3개까지 오는 예가(이 經 功德을 닐어도 오히려 能히 다 몯ᄒᆞ리라 <月十八, 10a-10b>) 확인되나, 석독구결 자료에서는 이와 같은 예를 찾기 어렵다. (22c)와 같은 예가 나타날 뿐이다.

2.6 기타

다음은 앞서 고찰한 부정사들 이외에 유일 예로 나타나는 부정사들이다.

(24) a. 當ㅅ 障ᄒᆞᆫ 作ᄉᆞᄆᆡ尸 勿ノ丌ㄱᄆᆡ ᄀᆞᄐᆡ ㅣンア矢ㅣ/ 반드시 障ᄒᆞᆫ를 作하게 되지 않아야 하겠구나 라고 하여야 할 것이다. <瑜伽 8:21-9:2>
b. 一切 聲聞ᄉᆞ 緣覺ᄉᆞノ仝ㅋ 動尸 不能ᄆᆡ矢ノ尸 所ᄆᆡ厶ナ宀セㅣ/ 一切 聲聞과 緣覺과 하는 것들이 동요하지 못하는 것이 당연하다. <華嚴 8:17-18>
c. 十方ㄷ 一切 諸ㄱ 如來ㅣ 悉ᄀᆞ 共ㄷ 倆揚ンニ乃 能 盡ᄀᆞ尸 不ᄆᆡ矢ンニロ乙宀セㅣ/ 十方의 一切 모든 如來들께서 다 함께 倆揚하시나 能히 다하지 못하는 것이 당연하다. <華嚴 9:7>
d. [於]一切法ᄀᆞ十 自在尸 無不ンア丁ノ尸 而ㅠ 衆生ㅋㄷ 第二導師ᄆᆡ尸 [爲]の乙ンム十宀セㅣ/ 一切法에 自在하지 못함이 없어서 衆生의 第二導師가 되느니라 <華嚴 2:16-17>

d'. 不生ンᄒᆞ 不滅ンᄒᆞ 不有ンᄒᆞ 不無ンᄒᆞンᄀᆞ 心ᄅᆞ十 安樂ᄒᆞ 住ンᄒᆞᄉᆞ/ 不生하며 不滅하며 不有하며 不無하며 한 마음에 安樂히 住하며 <金光 4:12-13>

d''. 甚深法ㅣ 心ᄋᆞ十 常ㅣ 樂ノ 聞白ノ尸ム 厭足ノ尸 無有ヒᄉᆞ/ 甚深한 法을 마음에 항상 즐겨 듣자오되 厭足함이 없으며 <金光 3:25-4:1>

(24a)~(24d)까지의 예들은 피부정사에 '-尸' 동명사형이 나타나는 용언문 부정 형식이다. (24a)는 '勿ノ-/勿호-', (24b)는 '不能ㅣ矣-/不能이디-', (24c)는 '不ㅣ矣-/아니디-', (24d)는 '無不ンᄒᆞ-/無不ᄒᆞ-'가 부정사로 쓰였다. (24a)의 '勿'은 15세기 국어의 부정사 '말-'에 대응되는 한문 구성소인데, 용언어간 'ᄒᆞ-'에 의도법 선어말 어미 '-오-'가 결합된 '호'가 연결되어 나타난다. (24c)의 '不ㅣ矣-/아니디-'를 沈在箕·李丞宰(1998:43)는 부정사 '未ㅣ-/아니'와 연관지어 '아니디>아니'의 언어적 변화를 반영한 표기로 파악하였다. '不'과 '未'는 南豊鉉(1996a: 32)의 지적과 같이 한문문법에서는 차이가 있으나 석독구결에선 같은 부정사의 구실을 하므로 '不ㅣ矣->未ㅣ-'의 설정이 타당성이 있다. '不ㅣ矣-'에서 '矣'가 생략되어 '未ㅣ-'가 되었다고 할 수도 있으나 이렇게 파악하기에는 '不ㅣ矣-'의 예가 너무 적게 나타난다.[8] 이 시대에 이미 '아니디'가 '아니'로 교체되고 있어서 '아니디'의 용례를 찾기 어려운 것이 아닌가 한다. (24d)의 '無不'은 내용상 긍정인데 부정사로 쓰였다. 부정사로 쓰이는 '無不ンᄀᆞ丁ノ尸/無不홇뎌홇'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예들이 나타나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

(25) a. 願のㄱ 一切乙 度ㅣロハᄒᆞノ尸ム 果ᄆᆞ尸 不ンᄀᆞ丁ノ尸 無ㅣ

8) 부정사 '不ㅣ矣-'의 예는 같은 문헌인 『華嚴經』에 '無ㅣンヒ 非ㅣ矣/업시ᄒᆞ나 아니디 <9:10-11>'의 형태로 '非ㅣ矣'의 예가 하나 더 나타날 뿐이다.

ンミナ丰皿/ 원하건댄 一切를 건지려는 데에 있어 뜻과 같지 않은 것이 없이 한다. <華嚴 14:9>

a′. 無上尊ヲ十 奉獻ン白ヲ古 [應]可センフ乙 掌セ 中ミ十 悉ミ 雨リヲフム 備ヲ尸 不ンア丁ノ尸 無リンナミ/ 無上의 尊者에게 奉獻하옴직한 것이(을) 손바닥 가운데에서 흘러나옴에 있어 갖추지 않은 것이 없이 하여 <華嚴 15:22-23>

a″. 譬のフ 幻師 如ミンミ尓 現ヲ尸 不ンア丁ノ尸 無ナ分/ 비유하건댄 幻師 같아서 나타나지 않은 것이 없으며 <華嚴 19:6-7>

(25a, a′, a″)는 (24d)와 동일 문헌인 『華嚴經』에 나타나는 예들로 모두 '不ンア丁ノ尸 無-/안돌홇뎌 홇 없-'으로 나타난다. 이는 '無不ンア丁ノ尸'과 비교했을 때 '不'에 연결된 구결토들이 일치한다. 따라서 '無不ンア丁ノ尸'은 '不ンア丁ノ尸 無-'으로 나타나는 이중 부정에서 부정소 '無/없-'이 '無'에 연결된 다양한 토들을 생략시키면서 '不' 앞으로 이동되어 생성된 것으로 생각된다. '不無'가 그 어순이 바뀌어 '無不'로 되는 것은 (24d)의 부정사 '無不ン-'에 대해 (24d′)의 '不無ン-'의 예가 나타나므로 가능한 일이다. (24d′)의 '不無ン-'는 '-尸' 동명사형의 피부정사가 나타나지 않으나 (24d)의 '無不ン-'에 미루어 부정사로 취급한다. (24d″)의 '無有セ分'는 '無'에 반대, 대립의 개념을 포함하는 '有'가 연결되어 나타나며, '-尸' 동명사형의 '厭足ノ尸/厭足홇'을 피부정사로 취한다. 이때 (24d″)와 동일한 피부정사에 부정사 '無分/없으며'가 연결된 아래와 같은 예가 발견된다.

(26) 供養ンき 親近ンきン白ノ尸ム 心ミ十 厭足ノ尸 無分/ 供養하며 親近하며 하오매 있어 마음에 厭足함이 없으며 <金光 3:24-25>

따라서 '無有セ分'도 '-尸' 동명사형을 피부정사로 취하는 부정사로

간주한다.[9]

다음은 석독구결 자료에서 이중 부정으로 보이는 예들이다.

(27) a. 無上尊ㅋ十 奉獻ㅅ白ㄱㅎ [應]可ㅌㅅㄱ乙 掌ㅌ 中ㅋ十 悉ㅋ 雨ㅣㄱㄱㅁ 備ㄱ尸 不ㅅ尸丁ノ尸 無ㅣㅅナㅋ/ 無上의 尊者에게 奉獻하옴직한 것이(을) 손바닥 가운데에서 흘러나옴에 있어 갖추지 않은 것이 없이 하여 <華嚴 15:22-23>

a′. 若ㅌ 供養ㅅ ㅎㅅㅁㅌ火ㅌㅂ尸のㄱ 皆ㅌ 安樂ㄹ 獲ㅣ [令]ㅣ尸 不ㅅ尸丁ノ尸 靡ㅣㅌㅅㅌ ㅎ分/ 만약 供養한다면 모두 安樂을 얻지 못하는 이가 없으며 <華嚴 14:10>

a″. 諸ㄱ 三昧ㅌ 味ㄹ 獲得ㅅ尸 不ㅅ尸丁ノ尸 莫ㅌㅌ立/ 모든 三昧의 맛을 獲得하지 못하기도 하는 이가 없어지이다. <華嚴 7:15>

b. 是ㅣ 因 無ㅣㅅ分 有緣 無ㅣㅅㅌ 非ㅣ矣/ 이것이 因 없이 하며 有緣 없이 하는 것이 아니니 <華嚴 9:10-11>

예 (27a, a′, a″)는 부정사 '不ㅅ尸丁ノ尸/안돌홇뎌 홇'에 '無/없-, 靡/없-, 莫/없-'이 연결되어 나타난다. 이중 부정의 예는 『華嚴經』에만 10여 예가 나타나는데, (27b)를 제외하고는 모두 (27a, a′, a″)의 형태로 나타난다. 예 (27a, a′, a″)는 '-尸' 동명사형을 피부정사로 하는 용언문 부정 형식으로, (27a)와 (27a′)는 고유어 동사 '備ㄱ尸/ᄀᆞᆺ홇, 獲ㅣ[令]ㅣ尸/얻잃'[10] (27a″)는 한자어 동사 '獲得ㅅ尸/獲得홇'을 피부정사로 취한다. 예 (27b)는 부정사 '無ㅣㅅㅌ/업시ᄒᆞ나'에 '非ㅣ矣/아니디'가 연결되어 나타나는 유일 예이다.

---

9) 鄭在永(1998:149)은 '無有ㅌ分'에 대해 '無 있으며'로 한글 전사 하였고, 南豊鉉(1996b:244)은 '無有'를 '無'와 같이 '없-'으로 읽었으나 정확한 독음은 알기 어렵다.

10) '獲ㅣ [令]ㅣ尸'에 대해 '얻잃'로 한글 전사한 것은 잠정적인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15세기 국어의 이중 부정 형식을 살펴보자.

(28) a. 念 뮈우미 業 아니니 업스며 罪 아니니 업스니 <月二十一, 98a>
b. 萬物을 브터 도ᄅᆞ혀샤 녹디 아니ᄒᆞ니 업스샤ᄆᆞᆯ 圓通이시다 니ᄅᆞ시니 (自萬物而反ᄒᆞ샤 照無不融을 則謂之圓通이시다 ᄒᆞ시니) <法七, 102b>
b′. 萬物로셔 도ᄅᆞ혀 비취샤 아니 스ᄆᆞᄎᆞᆫ디 업스샤ᄆᆞᆯ 圓通이시다 ᄒᆞᄂᆞ니 <釋二十一, 19a>
c. 乃終내 진딧 업수미 아니니 <月一, 36a>

15세기 국어의 이중 부정 형식은 (28a)와 같이 '아니니 없-'의 형태로 가장 많은 예들이 나타난다. (28b)와 (28b′)는 동일원문의 이번역본에서 각각 다르게 나타나는 예들로 (28b)는 용언의 장형 부정문 형식 (28b′)는 단형 부정문 형식에 '없-'이 연결되었다. 석독구결 자료에 나타나는 (27a, a′, a″)의 용언문 부정 형식은 15세기 국어의 (28b)의 형태와 관계한다. 석독구결의 (27b)의 이중 부정 형식은 15세기 국어에서 (28c)와 같은 형태로 나타난다.

Ⅳ. 결론

이제까지 우리는 고려시대 석독구결 자료에 나타나는 부정사의 용례를 유형별로 나누어 그 기능을 고찰하여 보았다. 지금까지 논의한 것을 요약하여 결론에 대신하기로 한다.

(1) 15세기 국어의 부정사 '아니, 몯, 말-'은 명사문 부정과 용언문

부정에 두루 쓰였으나, 고려시대 석독구결 자료에서는 그 부정사가 '不ᄎᆞ(非ᄎᆞ), 不矣(非矣/未矣), 不ㅅ(未ㅅ), 未ㅣ, 無(无/莫/靡), 無(无)ᄂᆞᆫ'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나서 '不矣(非矣/未矣)는 명사문 부정에, 無(无/莫/靡), 無(无)ᄂᆞᆫ'는 명사문 부정과 용언문 부정에 '不ᄎᆞ(非ᄎᆞ), 不ㅅ(未ㅅ), 未ㅣ'는 용언문 부정에 쓰였다.

(2) '-ᄆᆞ' 동명사만을 부정하는 부정사로는 '不ᄎᆞ(非ᄎᆞ), 未ㅣ', '-ㄱ' 동명사만을 부정하는 부정사로는 '不矣(非矣/未矣)', '-ᄆᆞ' 동명사뿐만 아니라 '-ㄱ' 동명사도 부정하는 부정사로는 '無(无/莫/靡), 無(无)ᄂᆞᆫ'가 나타난다. 부정사 '不ㅅ(未ㅅ)'은 주로 '-ᄆᆞ' 동명사를 부정하나, '-ㄱ' 동명사를 부정하는 예외적인 예가 1예 나타난다.

(3) 명사문 부정 형식에서는 부정사가 피부정사에 후행하는 예만이 나타나므로 15세기 이후의 국어와 다르지 않다. 용언문 부정 형식에서는 부정사가 피부정사의 전후 어디에도 올 수 있으나 부정사가 피부정사에 선행하는 단형 부정문 형식은 부정사 '不ᄎᆞ'의 경우에만 나타난다. 이는 15세기에 부정사 '말-'을 제외한 '아니, 몯'의 경우에만 단형 부정문 형식이 나타나는 것과 비교된다.

(4) 명사문 부정 형식은 토의 표기 없는 명사, 용언 어간에 'ᄉᆞ, ᄇᆞ'가 결합된 것, 공동격 조사 'ㅅ'로 연결된 명사구, 의존명사를 핵으로 하는 명사구를 피부정사로 하는 예들이 나타난다. 용언문 부정 형식은 주로 '-ᄆᆞ' 동명사형을 피부정사로 취한다.

(5) 용언문 부정 형식에서 부정사 '不ᄎᆞ(非ᄎᆞ), 未ㅣ, 不矣(非矣/未矣), 不ㅅ(未ㅅ)'에 선행하는 피부정사에 연결되는 동명사형 어미 '-ᄆᆞ'과 '-ㄱ'은 15세기 국어의 용언문 부정 형식 중 '용언어간 + -디 + 아니(몯, 말)'의 장형 부정문 형식에서 보문자 '-디'와 같은 구실을 한다.

(6) 용언문 부정 형식에서 동일한 피부정사에 연결되어 부정법상에 다른 특징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ᄆᆞ, -ㄱ' 동명사형을 부정하는 부정사로서 서로 수의적으로 교체되어 쓰이는 부정사로는 '不ㅅ'과 '未ㅅ',

'無(无)-'과 '無(无)ㅅ-', '未ㅐ'와 '未ㅅ', '無(無ㅅ)-'와 '不矣'가 확인된다.

(7) 부정사 '不ㅅ(未ㅅ)'이 오는 용언문 부정 형식에서 피부정사와 부정사 사이에 부사가 위치하는 예들은 고려시대 석독구결 자료에 나타나는 이 시대 부정법의 한 특징으로 간주된다. 15세기에는 이와 같은 예들이 나타나지 않는다.

(8) 유일예인 부정사들로는 '勿ㄴ-, 不能ㅐ矣-, 不ㅐ矣-, 無不ㅅ-, 不無ㅅ-, 無有ㄷ分'가 확인되며, '不無ㅅ-'를 제외하고는 모두 '-尸' 동명사형을 피부정사로 하는 용언문 부정 형식으로 나타난다.

(9) 이중 부정 형식은 주로 '不ㅅ尸丁ㄴ尸 無(莫/靡)-'으로 나타나는데 부정사 '無不ㅅ尸丁ㄴ尸'은 이 이중 부정 형식에서 생성된 것으로 보인다.

끝으로 부정문 형식의 변화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석독구결>

① 명사문 부정 형식 : 명사(구) + 不矣(非矣/未矣), 無(无/莫/靡), 無(无)ㅅ-

② 용언문 부정 형식

단형부정 : 不多 + 용언

장형부정 : 용언 + -尸(-ㄱ) + 不多(非多), 不ㅅ(未ㅅ), 未ㅐ, 無(无/莫/靡), 無(无)ㅅ-

<15세기>

① 명사문 부정 형식 : 명사(구) + 아니, 몯, 말-

② 용언문 부정 형식

단형부정 : 아니, 몯 + 용언

장형부정 : 용언어간 + -디 + 아니, 몯, 말-

참고문헌

김정아(2000), 「'이-'의 문법적 특성에 대한 통시적 고찰」, 『제27회 국어학회 공동연구회 발표 논문집』.

南星祐·鄭在永(1998), 「『舊譯仁王經』 釋讀口訣의 表記法과 한글 轉寫」, 『口訣硏究』 第3輯, 口訣學會.

南豊鉉(1976), 「國語 否定法의 發達」, 『문법연구』 3.

_____(1996a), 「高麗時代 釋讀口訣의 'ㅱ/ㄹ'에 대한 考察」, 『口訣硏究』 第1輯, 口訣學會.

_____(1996b), 「『金光明經』 卷三 釋讀口訣에 나타난 ㅱ의 用法에 대하여」, 『이기문교수정년퇴임기념논총』, 신구문화사.

_____(1996c), 「高麗時代 釋讀口訣의 動名詞語尾 '-ㄱ/ㄴ'에 대한 考察」, 『국어학』 28.

_____(1998), 「『瑜伽師地論』(卷20) 釋讀口訣의 表記法과 한글 轉寫」, 『口訣硏究』 第3輯, 口訣學會.

박진호(1998), 「고대 국어 문법」, 『국어의 시대별 변천 연구』 3, 국립국어연구원.

沈在箕·李丞宰(1998), 「『華嚴經』 口訣의 表記法과 한글 轉寫」, 『口訣硏究』 第3輯, 口訣學會.

鄭在永(1998), 「『合部金光明經』(卷三) 釋讀口訣의 表記法과 한글 轉寫」, 『口訣硏究』 第3輯, 口訣學會.

趙殷柱(2000), 「15세기 국어의 부정법 연구」, 『國文學論集』 第17輯, 檀國大 國語國文學科.

洪宗善(1980), 「國語 否定法의 變遷 硏究」, 고려대 석사학위 논문.

On negation in Seokdok-Kugyol(釋讀口訣) texts of Koryo dynasty period

Cho, Eun-Joo

This paper presents an examination of negations that appear in Seokdok-Kugyol texts of Koryo dynasty period, such as '*Sinyeok-hwaeomkyeong*, *Hopbu-keumkwangmyeongkyeong*, *Kuyeok inwang-kyeong*, *Yugasajiron*'. In doing so, the negative markers therein are identified and their functions and usages are addressed. The findings drawn therefrom are: negative marker '不矣(非矣/未矣), 無(无/莫/靡), 無(无)ㅅ-' is used for negation in noun sentences, negative marker '不多' for short negation in verb and adjective sentences, and negative marker '不多(非多), 不ㅅ(未ㅅ), 未ㅣ, 無(无/莫/靡), 無(无)ㅅ-' for long negation in verb and adjective sentences.